

# 임진왜란 전후 조선 수군의 군사체제 비교 연구

나 승 학\*

1. 머리말
2. 임진왜란 전후의 조직편성 비교
3. 임진왜란 전후의 군사훈련 비교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 전쟁사는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역사·문화·정치의 근간을 바꾸었다. 임진왜란은 왜군의 침략으로 육군과 수군의 현저한 대조를 이루며 한반도에서 흥망을 판가름한 朝鮮史上 큰 전란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큰 영향을 미친 임진왜란을 전란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누고자 한다.

먼저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 수군은 태조 7년 9월에 접어들면서 편성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수군의

\*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편성을 연해지역으로 국한하여 편성되었고, 무리한 군역을 부담하지 못하게 하였다.<sup>1)</sup> 그러다가 정종 즉위 교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해지역에서 전국지역으로 수군을 편성하게 되었고, 특정지역의 특수병종적인 성격에서 일반병종으로 확대되었다.<sup>2)</sup> 그 결과 15세기 수군 병력의 수는 49,337명에 달하였다. 이는 당시 중앙군 전체 병력 96,259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이다.<sup>3)</sup> 또한 군선의 건조와 개량에 박차를 가하여 15세기 말 세조와 성종 대에 739척을 보유하였고, 대·중·소맹선<sup>4)</sup> 체제를 완성하였다.<sup>5)</sup>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치·사회·경제 각 방면에 걸쳐 대대적인 정비와 체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16세기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의 군사제도는 많은 모순과 결함을 드러내었고, 조선군은 군사 및 전법체계에 대대적인 정비와 체제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 특히, 전란을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수군은 조선의 군사 체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조선시대 軍事史 연구로는 軍制, 戰爭史, 軍事思想, 軍役, 軍事施設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sup>6)</sup> 조선 수군에 관한 연구로 수군의 변천사, 전략전술, 무기체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7)</sup> 본고의 주제와 연관된 연구로는 수군의 군사 훈련에 관한

1) 『太祖實錄』 권14, 太祖 元年 7年 閏 5月 丙戌.

2) 『太祖實錄』 권15, 太祖 元年 7年 9月 甲申.

3) 이민웅, 「해상방어체제의 정비와 수군」, 『한국군사사 5 : 조선전기 I』,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a, 395~397쪽.

4) 조선 초기의 군선 건조 노력은 세조, 성종 대까지 계속되었으며, 세종대에는 戰船의 종류가 10여 종이 세조대 이후에는 맹선 중심으로 크기에 따라 대·중·소맹선으로 구분했으며, 無軍船도 대·중·소맹선으로 구분하였다. 크기가 작을수록 왜선을 추격하기 용이하므로, 중·소맹선 위주로 운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經國大典』 권4, 병전; 이민웅, 앞의 글, 2012a, 423~425쪽.

5) 이민웅, 「조선전기(15~16C) 수군의 변천사」, 『이순신 연구논총』 제14호, 2010, 213~217쪽.

6) 노영구, 「최근의 조선시대 군사사 연구 경향과 과제」, 『교수논총』 통권 제44집, 2007, 43~60쪽.

7)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서 이민웅(「조선전기(15~16C) 수군의 변천사」, 『이순

내용으로 수군의 편성 및 훈련절차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sup>8)</sup> 일본 측 연구로는 ‘조선시대 조선수군의 조직편성’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도요토미 정권의 조선 원정대의 수군 조직의 내용으로 다루졌고,<sup>9)</sup> 그 외에 연구로는 ‘수군 승리의 보완 요인’이라는 제목에서 거북선이 일본 배보다 전략적 행동을 하도록 선체 구조 등의 요인으로 조선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조선 전기의 수군 제도 및 임진왜란시 수군이 승전을 거둘 수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임진왜란 전후 조선 수군의 지휘 체제 및 전투 양식, 전술 훈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전후의 조선 수군의 군사체제와 편성 및 훈련체제 비교를 통해서 조선 수군의 군사 편성조직과 군사 훈련의 일단을 조망하고자 한다.

---

신 연구논총』 제14호, 2010)은 조선 초기의 수군 강화와 임진왜란의 해전 승리를 연결해서 규명하려고 주요 왜변과 수군의 변화를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승리요인을 군선의 크기, 강도 그리고 화기·화력의 우위,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전술, 리더십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장명(『임진왜란 시기 전라좌수군의 전투구성원과 전투수행』, 『이순신 연구논총』 제21호, 2014)은 임진왜란 수군 승리의 주역인 전라좌수군의 승리요인을 밝히기 위한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룬 전투 구성원에는 어떤 신분과 직임을 가진 군사들이 활동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나종우(『이순신 장군의 전략전술』, 『전북사학』 제5호, 1981)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전술에 대하여 주로 밝혔으며, 거북선에 관한 당과전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또한 「조선 수군의 무기체계와 전술구사」, 『한일관계사연구』 제10호, 1999)에서는 임진왜란 승리의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조선 수군의 무기체계와 전술구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민웅, 앞의 글, 2012a, 387~499쪽에서 해상방어체제의 정비와 수군에서 수군의 체제와 정비, 제도적 발전, 복무방식, 병력 충원 등을 주로 연구하였다.

- 8) 방상현, 「조선전기 수군의 전술능력」, 『경희사학』 제6·7·8합권, 1980, 65~79쪽; 광낙현, 「조선전기 習陣과 군사훈련」, 『동양고전연구』 제35집, 2009, 359~385쪽.
- 9) 鬼清一郎, 「朝鮮役における水軍編成について」, 『名古屋大學文學部二十周年記念論集』, 1969, 267~285쪽.
- 10) Heidi Holz, 「Complementary Keys to Naval Victory」, 『U.S. Naval Institute』, 2009, pp.50~55.

## 2. 임진왜란 전후의 조직편성 비교

수군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운용하였다. 공민왕 대에 극심한 왜구의 침략은 수군력의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同王 원년에 이미 왜적의 침입이 개경에 도달하였고, 공민왕 全代를 통하여 왜적의 침입이 없었던 해는 同王 5년과 17년 두 해뿐이다.<sup>11)</sup>

이처럼 왜구가 극심했음에도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못했다. 그 이유로는 공민왕 5년 쌍성 攻陷과 함주 이북의 舊土를 수복하였지만,<sup>12)</sup> 同王 7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아사자가 속출하였고, 심지어는 왕도 1일 1식을 할 정도였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흉건적의 침입,<sup>13)</sup> 김용·덕흥군의 내란<sup>14)</sup> 등으로 군사적 조치를 못하게 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왜구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수군을 강화하였다. 15세기 조선 수군은 전체 병력의 5만여 명이었고, 군선의 건조와 개량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태종과 세종 대에 발전을 이룩하였다.

16세기 이후에는 文을 중시하는 文治主義 영향으로 국방태세가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허점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정비와 개편을 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흥망을 판가름하던 근세 朝鮮史上 큰 전란 중의 하나이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 조정은 군제개혁으로 무기체계와 전략전술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즉, 軍制는 국가 존립과 국가의 안위에 필요한 제도이므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 조정은

11) 『高麗史』世家 권38, 恭愍王 元年.

12) 『高麗史』世家 권39, 恭愍王 5年.

13) 『高麗史』世家 권39, 恭愍王 9年.

14)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2年 癸卯.

군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임진왜란 전후에 대한 수군의 조직 편성면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중앙군과 지방군의 군사편제, 수군의 전력 현황을 통한 비교·논의하고자 한다.

### 가. 중앙군과 지방군의 군사 편제

#### 1) 중앙군 편제

조선 초기 중앙군은 <표 1>에서처럼 고려시대의 2軍 6衛제도를 답습하였지만, 義興親衛左·右衛를 신설한 10衛로 개편하였다. 1衛 5領의 체계를 갖추어 10衛 50領의 편제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1領을 1,000명으로 하면 약 5만여 명의 중앙군이 성립된 것이다.<sup>15)</sup>

중앙군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태조 2년(1393년) 9월 이성계가 병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설치하였던 三軍總制御를 義興三軍附로 개칭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sup>16)</sup> 본 절에서는 수군의 조직체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표 1> 임진왜란 전후의 중앙군 편제 비교

구 분	내 용
임진왜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시대의 2軍 6衛제도를 답습하였으나 2軍 10衛로 개편</li> <li>· 三軍總制御를 義興三軍附로 개칭(태조 2년)</li> <li>· 수군의 중요성 대두, 정도전의 육군과 수군을 편제화로 삼포(전라·경상·양광)에 수군절제사 파견(태조 2년)</li> <li>· 道 단위로 임명된 수군처치사 파견(세조 3년)</li> <li>· 鎭管體制<sup>17)</sup> 유명무실, 制勝方略體制<sup>18)</sup></li> </ul>
임진왜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衛制度를 임진왜란 발발 후 재정비</li> <li>· 三手兵을 중심으로 束伍法에 의한 훈련도감 설치 (16세기 邊方備禦 목적으로 설치한 備邊司의 권한 강화)</li> <li>· 5軍營 조직(핵심적인 군사조직)</li> </ul>

15) 김홍 편저, 『한국군사제도사』, 명성출판사, 1997, 70쪽.

16) 『太祖實錄』 권4, 2年 9月 丙辰, 10月 己丑;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7, 5쪽 재인용.

17) 노영구, 「제1차 조선-일본전쟁 전황과 조선군의 대응」 『한국군사사 7 : 조선

서해도 관찰사 趙云屹의 상소는 국방정책이 해안과 북변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왜구로 인해 폐지되었던 비옥한 토지를 가진 大小島와 그곳에서 생산되는 어염에 대한 海防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sup>19)</sup> 이는 수군을 강화하여 어염의 이익을 주고 국가경제를 풍족히 할 것을 건의한 것이고, 대사헌 趙浚은 수군을 강화시키는 구체적 방법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sup>20)</sup> 즉, 수군은 각 도를 단위로 1명의 절제사를 파견하여 책임을 주게 하라는 것이다. 태조의 뜻을 받들어 정도전은 ‘外則有陸守之兵 有騎船之兵’<sup>21)</sup> 하도록 법제화함으로 육군과 수군을 동등한 방위군으로 삼았다.<sup>22)</sup> 이를 기반으로 태조 2년 3월에 전라·경상·양광 삼도에 수군절제사를 파견하여 병마를 관장케 함으로써 지역 방위제의 계기를 마련하게 하였다.<sup>23)</sup> 세조 3년 9월에 수군의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道 단위로 임명된 수군처치사에게 도민을 보호할 책무와 휘하 군사를 지휘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sup>24)</sup>

조선시대 전기 중앙 군사조직인 5衛制度和 지방 군사조직인 鎭管 및 制勝方略體制는 16세기 말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군사체제의 재정비 대책을 논의하여 개편하기 시작했다. 즉, 16세기 邊方備禦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備邊司의 권한을 강화하고 三手兵을 중심

후기 I』,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29쪽 : 鎭管體制는 전국의 행정조직을 巨鎭을 중심으로 한 군사 방어체계 속에 편입시킨 것으로 적군이 한 鎭을 붕괴시키더라도 다음의 여러 鎭에서 정렬하여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18) 노영구, 위의 글, 2012, 29~30쪽 : 制勝方略體制는 적군의 침략이 있으면 지방군을 사전에 소집시키고, 중앙에서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도원수 등 지휘관을 파견하는 지휘체계이지만, 중앙에서 도착하기 전 적이 먼저 쳐들어와서 효과적이지 못했고, 소규모 침입일 때 유효한 것이다.
- 19) 『東史綱目』 70上, 上高麗後發王昌條: 장학근, 『朝鮮時代海洋防衛史』, 청미사, 1988, 38쪽 재인용.
- 20) 『高麗史節要』 권34, 恭讓王 己巳元年.
- 21) 『朝鮮經國典』 下, 政典 軍制.
- 22) 장학근, 앞의 책, 1988, 40쪽.
- 23) 『太祖實錄』 권3, 太祖 2年 3月 甲子.
- 24) 『世祖實錄』 권9, 世祖 3年 9月 戊寅.

으로 東伍法에 의하여 중앙군에는 훈련도감, 지방군에는 東伍軍<sup>25)</sup>을 조직하여 對倭戰爭을 승리로 이끄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이 군사개편의 계기가 되어 그 뒤 중앙군에는 5軍營이 설치되었고, 지방군에는 東伍軍이 중심이 되어 핵심적인 군사조직으로 등장하였다.<sup>26)</sup>

조선 조정은 선조 26년(1593) 10월에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중앙군과 지방군을 편성, 훈련 무기와 식량을 조달하도록 조치하였다.

訓練都監은 訓局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官軍이 싸움에 저서 흩어져 전군이 왜군에게 유리당한 뒤, 전관에 의한 飢民을 군사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급료를 주고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시켜 飢民을 구제함과 精兵을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선조 27년(1594) 2월에 설치하였으며,<sup>27)</sup> 조직 편제는 <표 2>에서처럼 훈련부서와 군수부서로 편성하였다.

<표 2> 훈련도감의 조직 편제

훈련부서	군수부서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조직편제는 도제조(都堤調)의 통솔 아래 훈련대장 1명, 중군(中軍) 1명, 천총(千摠) 1명, 파총(把摠) 1명, 초관(哨官) 6명 및 사수(射手)인 마병(馬兵) 2초(哨), 포(砲)·살수(殺手)인 보군(步軍) 25초로 구성	유사당상(有司堂上) 1명, 도청(都廳) 1명, 낭청(郎廳) 5명으로 구성

출처 : 『萬機要覽』 군정편 2, 훈련도감 군총; 『宣祖修正實錄』 권28, 선조 27년 2월 庚戌을 표로 구성.

25) 東伍軍은 훈련도감의 지시에 따라 都巡察使 책임아래 각 營將 중심으로 習陣이 이루어지고 把摠·哨官·隊摠·旗摠에 의하여 각 教場에서 훈련하도록 하였다; 김홍 편저, 앞의 책, 1997, 131~140쪽.

26) 김홍 편저, 앞의 책, 1997, 104쪽.

27) 김홍 편저, 앞의 책, 1997, 104~105쪽 : 훈련도감의 설치가 구체화된 것은 선조 26년(1593) 7월에 조진 조정에서 勝倭之策의 하나로서 砲軍을 훈련 양성하게 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三道都 體察使로서 군사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던 류성룡 등의 건의에 의하여 기민 구제와 정병양성을 목적으로 일정한 규정을 정하여 募兵·訓練하게 하고 “기효신서”의 浙江兵法에 준하게 하였다.

2) 지방군 편제

조선 초기 지방군 제도도 중앙군 편제처럼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였다. <표 3>에서처럼 각 道마다 전담 都節制使가 있어 京畿左道·京畿右道·楊廣道·慶尙道·全羅道·交州道·江陵道の 8도는 軍事行政과 軍事活動에 있어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었다. 도절제사의 역할은 유사시에 그 고장의 병력에 동원하여 싸우는 정도로써 직접 거느린 군사력은 지극히 소수였으며, 평상시에는 서울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 군사를 장악하는 것은 기간요원들이었다.<sup>28)</sup>

<표 3> 임진왜란 전후의 지방군 편제

구 분	내 용
임진왜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陸守軍과 騎船軍으로 구분</li> <li>· 都節制使 설치(8도)</li> <li>· 兵馬道 폐지(태조 6년)</li> <li>· 각 道에 요새지역에 鎭 설치(11개소) (南方海岸地域의 방어기지 역할)</li> </ul>
임진왜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진왜란 기간 중 수군의 전력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력충원, 군량확보, 전선 건조, 무기 제조, 군사훈련</li> </ul> </li> <li>· 삼도수군통제사 재임명(이순신)교지 후 수군 재건 추진</li> <li>· 三手兵을 중심으로 束伍法에 의한 속오군 조직 (16세기 邊方備禦 목적으로 설치한 備邊司의 권한 강화)</li> </ul>

조선 초기 지방군은 크게 陸守軍과 騎船軍<sup>29)</sup>으로 나뉘고 세부내용은 <표 4>와 같다. 이들은 군사조직체이기는 하지만 평시에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로서 군사적 기능은 기대할 수 없었다.<sup>30)</sup>

28) 김홍 편저, 앞의 책, 1997, 76쪽.

29) 陸水軍과 대조되는 해군의 초기는 騎船軍이며 뒤에 船軍, 水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30) 김홍 편저, 위의 책, 1997, 78쪽.

〈표 4〉 조선 초기 지방군의 편성

구 분		내 용
陸守軍	侍衛牌	일반 농민들의 의무 군역으로 番上侍衛
	營鎮軍 (주력 부대)	騎兵, 守城軍(步軍)으로 편성 지방 各營·鎮에 赴防 복무
騎船軍 (水軍의 시초)		고려시대의 기선군은 沿海民가운데 노 젓기에 익숙한 자들로 충당, 염전의 이익을 주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염전의 혜택 없 이 군역하고 복무여건도 영진군은 4교대에 반해, 2교대로 기 선군의 역을 회피 현상 초래

출처 : 김홍 편저, 앞의 책, 1997, 76쪽을 연구자가 표로 구성함.

전통사회에서 軍의 쓰임은 크게 ‘국왕을 보위’와 ‘외적의 방어’로 구분되며, 중앙군은 국왕을 호위하는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지방군은 외적의 방어를 주목적으로 운영되었다.<sup>31)</sup>

따라서 조선시대의 국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군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의 주력은 수군이므로 수군의 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3) 수군의 편제

수군의 진관체제는 성종 대에 각 鎭浦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완성되었다. 당시까지도 왜구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인데, 조선 건국 초의 해양방위체제는 수군이 군선에 오래 머무르면서 해안을 방위하는 長在船上守禦<sup>32)</sup>(군선에 오래 머무르면서 해안을 방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水戰의 중요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5세기부터 정비해 오던 鎭營體制를 계승한 것이다. 16세기 진관체제는 각 道에 水軍節度使가 임명되어

31) 김우철, 「조선후기 군사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103쪽.

32) 『成宗實錄』 권207, 成宗 18年 9月 癸丑.

主震-巨鎮-諸鎮으로 구성되는 방어구역을 설정<sup>33)</sup>하고 각각의 진관을 방어하는 것이 확립되었다.

본고의 주제와 연관된 수군의 전신인 騎船軍의 편제는 태조대에 水軍都節制使·水軍僉節制使 편제였으며, 세종 2년에는 水軍都節制使에서 水軍都安撫·處置使로 개칭되었다. 또한 水軍의 관직도 태조 7년에 萬戶, 千戶, 百戶에서 세종 25년에는 다시 萬戶, 千戶로 개칭하였다.

조선 초 개국 초기부터 왜구 대책의 일환으로 수군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15세기 중반 ‘세종실록지리지’의 수군 병력은 5만여 명이었고, 태종과 세종 대에 군선은 600여 척에서 800여 척으로 증가했다. 또한 明·日本 등 각국의 造船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군선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34)</sup>

15세기 후반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서 수군은 48,800여 명으로 큰 차이 없다. 군선은 大·中·小猛船으로 구성된 猛船체제를 완성하였는데, 유사시 대비 無軍船 240여 척을 포함해 730여 척을 보유하고 있었다.<sup>35)</sup>

조선 전기<sup>36)</sup>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각각 좌우도 수군절도사를 별도로 두었고, 충청도와 경기도 등에는 수군절도사를 두는 등 규모 및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다. 지휘 체계면에서도 수군절도사 하부조직에 수군첨절제사와 수군만호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지휘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33)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252~253쪽.

34) 이민웅, 『이순신 평전』, 성안당, 2012b, 69쪽.

35) 이민웅, 앞의 책, 2012b, 69쪽.

36) 이민웅, 앞의 책, 2012b, 95쪽 : 조선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분기점을 이민웅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보고 있고, 다른 학자는 1623년 인조반정을 기점으로 보고 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치·사회·경제 각 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필자는 이민웅이 주장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나. 수군의 전력 현황

수군 병력확보를 위해서 國役을 담당하는 주요 신분계층은 <표 5>의 현황과 같이 연령 만 16~60세 양인을 대상으로 의무 병종이었다. 조선 왕조가 건국되면서부터 沿海民을 三丁一戶로 하는 수군 편성원칙을 적용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바다와 아주 먼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고을마다 船軍 군역 담당자를 임명하여 병력을 보충하도록 하였다.<sup>37)</sup>

<표 5> 수군의 군역

연령층	만 16~60세
신분 계층	양인의 의무 병종
편성 원칙	沿海民을 三丁一戶
船軍 군역 담당자	300여 개의 고을에 배정하여 병력충원

출처 : 오봉근,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1998, 177쪽의 내용을 표로 구성.

조선 초기의 군적의 작성에 의하여 군정수를 보면, 1392년에 8도의 馬兵, 步兵, 騎船軍(軍船)의 수는 총 200,800여 명이고, 여기에 각종 국역 부담자까지 합하면 301,300여 명이었다.<sup>38)</sup> 수군의 국역은 정상적으로 충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선군수와 병종별 현황은 <표 6>과 같이 8도의 선군 수는 49,317명으로, 기타 병종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볼 때, 수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알 수 있다.

37) 오봉근, 앞의 책, 1998, 177쪽.

38) 『太祖實錄』 권3, 太祖 2年 5月, 庚午;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 수군 운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13쪽.

〈표 6〉 수군의 선군수와 병종별 현황

도별 선군의 군액(명)		기타 병종별 군액(명)	
경기	3,892	시위군	14,933
충청	7,858	수호군	248
경상	15,934	영진군	8,066
전라	11,793	영진속군	2,736
황해	3,997	수성군	1,316
강원	1,384	진방패	25
평안	3,490	익군	14,053
함길	969	익속군	4,472
계	49,317	계	45,849

출처 : 『世宗實錄』, 「地理地」; 제장명, 앞의 글, 2014, 13~14쪽.

그러나 15세기 후반에는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군액이 줄고 대립제가 성행하면서 병사를 충원하는데 힘들었다. 이후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국방태세가 해이해져 수군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복무기간도 두 배나 길고, 船上 생활하는 등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해 충원도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그렇지만 16세기 중반 왜구가 빈번하게 출몰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수군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 3. 임진왜란 전후의 군사훈련 비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정비와 개편을 하게 되었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진법이 채택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 체계도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정비와 개편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병서와 군사 훈련면을 임진왜란 전후로 비교·논의하고자 한다.

### 가. 병서

병서들이 중요한 이유는 군사 편제인 오위체제와 진법 등 훈련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훈련의 목적은 통일된 지휘체계의 확립차원에서 병서를 바탕으로 훈련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임진왜란 전후의 병서 편찬 비교

구 분	내 용
임진왜란 이전	· 陣法, 陣圖之法(1421), 癸丑陣設(1433), 五衛陣法(1451)
임진왜란 이후	· 『紀效新書』 병법 적용을 위해 명나라 교관 지원 하 교육 · 『紀效新書』를 조선군에 맞게 구체화한 『兵學指南』 <sup>39)</sup> 편찬 · 『兵學通』 편찬(정조 9년, 1785)

조선의 군제는 〈표 7〉에서 처럼 정도전의 진법(陣法)<sup>40)</sup>을 편찬한 이래로 진도지법(陣圖之法, 1421년), 계축진설(癸丑陣說, 1433년), 오위진법(五衛陣法, 1451년)과 같은 병서를 편찬하여 군제를 정비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명나라의 병서인 기효신서(紀效新書, 1562년)<sup>41)</sup>의 내용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서 군제를

39) 장학근, 앞의 책, 1988, 232~234쪽 : 병학지남의 수조정식에는 수군 진도에 대한 최초 연구 및 분석은 장학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기효신서의 내용 중 대규모 선단 운용을 병학지남에서 도입되면서 조선 후기 진술에 도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40) 정혜은, 『한국 전통 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2쪽 : 진법(陣法)은 전투대형을 갖추는 법을 의미하며, 곧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사를 편제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진법이 발전하면 군사제도와 전략도 변화 및 발전하게 된다.

41) 정혜은, 앞의 책, 2004, 24쪽 : 기효신서(紀效新書, 1562년)는 명나라 장수 척계광(1528년~1588년)은 왜구 피해가 극심한 지역(절강, 복건 등)에서 왜구 격퇴에 공을 세운 경험을 바탕으로 기효신서를 저술했으며, 절강병법 또는 척법이라 불리는 보병을 중심으로 화기와 단병기의 긴밀한 협조로 운용하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재정립하였다. 즉, 조선은 새로운 전술과 훈련체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紀效新書』 병법을 적용하려고 명나라의 교관을 지원받아 가르치도록 하였다. 기효신서를 조선군에 맞게 구체화하여 『兵學指南』을 편찬하였다. 또한 18세기에 『병학통』의 편찬함으로써 전술 및 훈련체계가 완성되게 되었다.

특히 17세기 초반 조선은 기효신서의 내용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서 기존의 5위 체제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던 편제, 전술, 훈련 등의 군사전반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어난 군사적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다면 전후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남으로써 조선에서 왜 새로운 전술과 훈련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것과 기효신서를 참고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587년(선조20) 2월에 倭船 18척이 전라도 興陽지역에 침입하였다. 이때 조선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흥양지역은 전라좌도 수군의 5관 5포<sup>42)</sup> 중에 1관 4포가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었다.

조선 조정은 金命元을 전라도 순찰사로, 申砮을 방어사로 파견하여 수습케 하였다. 그런데 이미 왜구가 노략질을 끝내고 물러난 뒤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전라좌수사 李薦이 예하 수군의 합동훈련 상태 점검을 위해 소집하였는데, 부하장수들이 지연 소집되어 일종의 군기문란 사태가 빚어졌다.<sup>43)</sup>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수군들의 군기 및 훈련정도가 미흡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엄정한 처벌 및 수군의 군기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군사훈련은 형식적이어서 군사들은 활을 다루거나 창을 사용할

42) 이민웅, 앞의 책, 2012b, 72~73쪽 : 5관 5포란 전라좌수사 예하에 5개 지방관과 5개 軍陣을 말한다. 5관은 순천부사·낙안군수·보성군수·광양현감·흥양현감이고, 5포란 방담첨사·사도첨사·녹도만호·발포만호·여도만호이다.

43) 이민웅, 앞의 책, 2012b, 70~71쪽.

능력조차도 갖추지 못했다. 훈련하기 위해 인원 점검시 한 사람이 4~5인의 이름을 대답하는 실정이었다.<sup>44)</sup>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사편제 개편 시도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선조 26년(1593) 1월에 선조의 신료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부터 전쟁에는 형세가 비록 상대가 되지 않아도 서로 이기고 지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왜노와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니 윤두수(尹斗壽)가 아뢰기를 “왜노는 훈련된 군사이고 우리 군사는 기율(紀律)이 없는 것이 싸울 때마다 번번히 패배하는 것입니다.”하였다.<sup>45)</sup>

전란 중에는 조선군에는 군사훈련을 가르칠 敎官이 없어서 明軍의 지휘관을 통해서 『紀效新書』의 병법대로 교련을 하게 되었다. 精壯한 자 모집하여 官司를 설치해서 교육, 훈련시키되 柳成龍, 李德馨이 이를 주관하도록 하고 또 명군의 교관을 청해 『기효신서』를 바탕으로 가르치게 되었다.<sup>46)</sup>

군사훈련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어려워하였으나, 다음 해부터 효과를 보게 됨에 따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정을 모집하여 잡역을 면제해주고, 賞格으로 응모 한 뒤 장수를 임명해 매일 조련하고 火砲, 弓矢, 槍刀 등의 기술을 나눈다면 백성들의 동요됨이 없이 安集 되어서 몇 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훌륭한 병사 수천 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 화약 조충, 三眼銃을 많이 만들어 충분히 훈련시키고 그 능력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였다.<sup>47)</sup>

조선 조정에서는 본격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게 됨에 따라 李鎰을

44) 김홍 편저, 앞의 책, 1997, 138~139쪽.

45) 『宣祖實錄』 권34, 宣祖 26年 1月 庚申.

46) 『宣祖實錄』 권67, 宣祖 28年 9月 己卯.

47) 『宣祖實錄』 권63, 宣祖 28年 5月 庚子.

책임자로 하여 먼저 武臣 및 禁軍, 火砲匠을 뽑아 각종 火砲, 防牌, 戰車, 狼筈, 槍, 劍 등을 학습시키도록 하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技術을 익히고, 조정에서는 砲手와 射手를 우선 뽑아 시험을 매주 실시하여 賞을 주었는데,<sup>48)</sup> 선조는 단지 적을 제압하기 위해 포수와 살수를 양성함에 따라서 일반 무사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어 무사들의 불만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조선 조정에서는 중국의 병법을 下三道에 있는 軍營에 가서 가르치도록 명나라 교관을 내려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훈련을 담당하러 내려간 교관들이 군사조련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사육을 채우는 등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sup>49)</sup>

임진왜란 중에 조선의 전법체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명나라의 『기효신서』에 입각하여 육군뿐만 아니라 수군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진왜란 직후에 『기효신서』에서 전법을 조선군에 맞게 편찬된 『兵學指南』에서 육군의 편성과 훈련절차가 수록되었고, 수군의 훈련 절차인 水操<sup>50)</sup>程式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표 8>에서처럼 25단계의 훈련절차가 포함된 것을 볼 때 수군의 훈련내용이 많이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48) 『宣祖實錄』 권61, 宣祖 28年 3月 丙辰.

49) 『宣祖實錄』 권49, 宣祖 27年 3月 戊戌.

50) 『兵學指南演義』 권3, 『場操程式』.

정해은, 앞의 책, 2004, 227~228쪽 : 조선시대에는 군사 훈련을 ‘操練’ 또는 ‘習操’라 표현했다. ‘操’는 조련이라는 의미로 ‘場操’는 훈련장이나 조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 ‘城操’는 城에서 행하는 수성 훈련, ‘水操’는 水軍 훈련, ‘夜操’는 야간 훈련, ‘分鍊’은 병력을 분산시켜 하는 훈련이다.

〈표 8〉 병학지남의 수조정식 25단계 절차

구분	단계	명칭	구체적인 절차
훈련 준비	1~10	훈련 준비단계	훈련준비 절차로서 적선 정찰, 출항 전 도열, 명령하달, 출항 등 절차
훈련 실시	11	적선을 보고 먼저 화기로 공격하기	적선을 발견하고 전선이 일자로 니열하고 화기(火器)를 사용하여 공격함[看賊船用火器]
	12	차례로 군화기를 사용하기	적선이 보다 접근하였을 때 차례로 군화기(軍火器)를 사격하여 공격함[次用軍火器]
	13	적선 공격하기	적선이 가장자리에 붙었을 때 공격함[對船攻打]
	14	힘껏 싸워 적선을 격파함	힘껏 싸워 전선을 파괴함[力戰碎舟]
	15~24	우발상황 및 훈련	우발상황에 대한 절차로 적선 접근 경보, 야간전투, 야간수조 講評 등
훈련 후 정비	25	훈련 후 복귀 및 정비	훈련 후 복귀 및 귀항 절차

출처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병학지남』, 세종대왕기념사업지, 2012, 295 ~312쪽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표로 구성.

수조정식의 내용 중 훈련 준비, 훈련 실시, 훈련 후 정비단계로 구분하여 반영되었다. 그러나 17세기는 조선 후기 水操의 형성기라 할 수 있지만 육군의 경우와는 달리 『기효신서』나 『병학지남』의 水操내용이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필자는 수조정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은 수군에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정형화된 세부적인 훈련절차가 존재한 가운데 병학지남의 수조정식에 개략적인 내용만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례로 네 종류의 진도가 있다. 진도는 舟師一寨列營圖, 脚船湊集廳發放圖, 列船作戰圖, 聯船下方營圖에 수록되어 있다.<sup>52)</sup> 이 진도는 수조정식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조선시대 수군의 훈련절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51) 『正祖實錄』 권20, 正祖 9年 9月 11日 丁巳: “我朝軍制 專用兵學指南 開放戚氏紀效新書 而西營簡閱 諸道操練 互有出入 率多齟齬”.

52) 노영구, 「병학지남에 나타난 조선후기 수군의 전투훈련」, 『문헌과 해설』, 2003, 91 ~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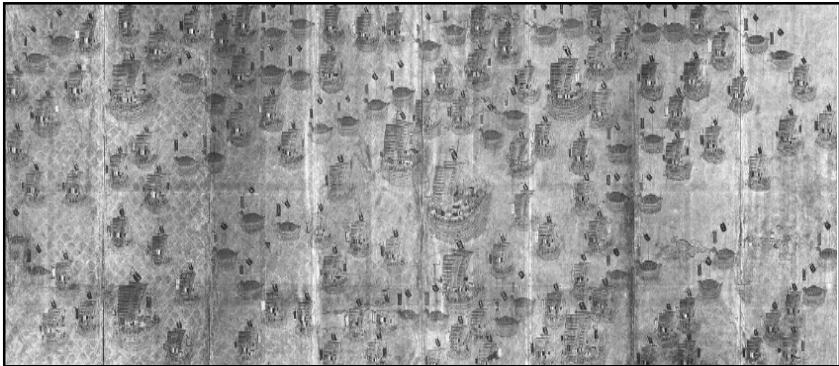
〈표 9〉 병학통의 15단계 절차

구분	단계	명칭	구체적인 절차
훈련준비	1~6	훈련 준비단계 및 이동	적선 탐색, 명령하달, 첨자진(尖子陣) 형성, 작전해역으로 이동
훈련실시	7	전투대형 유지	전투대형인 일자진(一字陣) 형성 절차
	8	사격·돌격·포위	적선과 전투 시 사격 및 돌격·포위절차
	9~14	우발상황 및 훈련, 야간전투	등화관제 실시·瞭望配置, 적선 접근 경보, 야간전투, 야간수조
훈련 후 정비	15	훈련 후 복귀 및 강평	講評, 歸 港

출처 : 장학근, 앞의 책, 1988. 236쪽.

병학통의 15단계 절차는 〈표 9〉에서처럼 전투에 해당하는 7단계부터 14단계이다. 전투대형인 일자진 형성 절차와 적선과 전투시 사격 및 돌격·포위절차 등의 내용이며, 훈련준비는 1단계부터 6단계, 훈련실시는 9단계부터 14단계, 훈련 후 정비 단계는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된 〈그림 1〉은 『통제영수군조련도』는 병학통에서 제시한 수군의 편제와 훈련 진형에 입각한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sup>53)</sup>



〈그림 1〉 통제영수군조련도

출처 : 19세기 전반, 지본채색, 153×521cm, 국립진주박물관(덕2783)

53) 유미나, 「조선후반기의 통제영 수군조련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81호, 2014, 178쪽.

병법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그것이 통일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임진·병자 양란을 치른 후 조선 수군이 지향한 전술체제는 대선단의 기동전술로의 전환이었다. 따라서 통일·체계화된 전법의 보급이 절실하였다. 조선 후기 수군의 전술체계화 과정이 『正祖實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병학통(兵學通)』이 이루어졌다. 우리 왕조(王朝)의 군제(軍制)는 『병학지남(兵學指南)』을 전용(專用)하였으니 대체로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効新書)』를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4영(營)의 검열(檢閱)과 여러 도의 조련(操鍊)이 서로 들쭉날쭉하여 대부분 어긋나는 일이 많았다.<sup>54)</sup>

위의 기록에 의하면 『兵學通』이 완성된 정조 9년(1785)까지 『兵學指南』을 전용하여 왔는데, 『병학지남』은 『기효신서』를 조선 수군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아래에는 조선 수군의 전술을 명나라의 『기효신서』와 『병학지남』, 『병학통』을 비교하였다(〈표 10〉 참조). 이는 조선 수군의 전술훈련의 체제와 병법을 비교한 것이다.

〈표 10〉 조선 수군의 전술 비교

기효신서	병학지남	병학통
「安擺船式圖」 「分關二營擺圖」 「一營擺圖」	「舟師一寨列營圖」 「脚船湊集聽發放圖」 「聯船下方營圖」 「列船作戰圖」	「船師江口列成行伍圖」 「尖字札圖」 「脚船湊集聽發放圖」 「列船作戰圖」 「整鯨回船」 「三道舟師放營圖」

임진왜란 중에 도입된 『기효신서』는 제도(諸道) 수구의 조련법에 응용되었고, 이것을 다시 정리·발전시켜 『병학지남』을 만들어 사용하여 오다가 정조 9년에 통일된 교범인 『병학통』을 만들었다. 『正祖實錄』의 이와 같은 기록은 조선 수군이 마치 명나라 병법을

54) 『正祖實錄』 권20, 9年 乙巳 9月 丁巳.

그대로 모방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군의 전법으로서 『기효신서』의 수전법은 「安擺船式圖」·「分關二營擺圖」·「一營擺圖」 이외는 다른 설명이 없다. 이에 비하면 『병학지남』에는 「舟師一寨列營圖」·「脚船湊集聽發放圖」·「聯船下方營圖」·「列船作戰圖」 등 4종(種)의 진법이 도해되어 있다.

여기에 『병학지남』의 전술을 보완하여 만든 『병학통』의 진도명을 살펴보면 「船師江口列成行伍圖」·「尖字札圖」·「脚船湊集聽發放圖」·「列船作戰圖」·「整鯨回船」·「三道舟師放營圖」의 수조식 진법이 연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병학통』은 통일된 조선 수군의 전술 교범이 되었고, 정조에 의해 『병학통』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sup>55)</sup>

교범화된 수조식의 내용은 『水操笏記』·『御定兵學通』·『萬機要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이 같다는 점은 조선 후기의 수조가 반복되었으며, 그것이 교범화 되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 나. 군사훈련

조선 조정에서는 1489년(성종 20)에는 정병과 수군의 역량 향상을 위해 습사제도를 마련했다.<sup>56)</sup> 정병은 매달 습진훈련을 마친 후에 사격훈련을 실시하여 결과를 후일에 고과에 반영하여 사용하였고,<sup>57)</sup> 수군을 정병보다 장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훈련은 1년 간 습사 성적을 종합해서 1등 3인, 2등 7인, 3등 10인을 선정하여 1등은 근무일수를 30일, 2등은 20일, 3등은 10일을 가산해 주게 했다. 또한 중앙에서 고관대신이 내려올 때에는 시험을 보아 성적이 좋은 자는 兼司僕으로 발탁하고, 2등자는 3년간 복호(호에 부과하는 잡역을 면제함)하고, 그 다음 사람은 활 1개와

55) 『正祖實錄』 권20, 正祖 9年 9月 丁巳.

56) 육군본부, 『한국군제사-조선 전기편』, 1969, 277쪽.

57) 『成宗實錄』 권225, 成宗 20年 2月 癸卯.

전 1部를 포상으로 주도록 하였다.<sup>58)</sup>

지휘관에 대해서도 포상 및 상벌규정도 육진의 장수가 습사를 하지 않으면 중죄로 처벌하고, 감찰하지 못한 죄로 관찰사까지 처벌하였다. 수군은 습사를 해서 3백 명 이상의 군사에서 20명의 능통한 사수가 나오거나 2백 명 이하에서 15인의 능통한 사수를 배출하면 첨사, 만호는 임기 만료 후에 동반 5, 6품에 임명하거나 서반에서는 우등 서용하게 했다. 반대로 능사자가 5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강등하고, 한명도 없으면 파면하게 했다.<sup>59)</sup> 즉, 우수 인원위주 포상을 했다면 전투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미흡한 지휘관까지 처벌한 조치로 보아서는 최소한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초에 진관체제는 군현을 단위로 민정과 군사 행정망을 통일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동원 체제를 갖췄다. 전국의 군현을 하나의 군진으로 형성하여 전국의 군사 요충지와 도로를 모두 전술적으로 통제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면전이 발생하면 1선, 2선, 3선 개념의 다중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sup>60)</sup> 그래서 본고에서는 수군훈련 실태를 논하고자 한다.

임진왜란 전에 전라도 일대를 여행하던 오희문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임진왜란의 징조를 파악하고 군현마다 습진 훈련을 하고 있었지만, 훈련 나온 사람들은 모두 어린아이 위주였고 또한 병기도 부족하였고, 대비태세를 한꺼번에 하려니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 했다.<sup>61)</sup>

15세기 후반에는 군액이 줄고 대립제가 성행하면서 병사의 수를

58) 『大典續錄』 병전, 장권 ; 임용한, 「군역의 문란과 진관체제의 약화」, 『한국군사사 6-조선 전기Ⅱ』,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262쪽 재인용.

59) 『大典續錄』 병전, 장권; 임용한, 앞의 글, 2012, 262~263쪽 재인용.

60) 유성룡, 『서애문집』 권5, 辰時無遮, 甲午 4月 ; 임용한, 앞의 글, 2012, 258쪽.

61) 오희문, 이민수 역, 『瓊尾錄』 上권, 壬辰南行日錄, 경인일보사, 1990, 6~11쪽.

채우기 위해 급급했지, 군사훈련 평가 하는 조치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sup>62)</sup> 그 결과 수군의 자질이 떨어졌다. “전라도 수군 1천 100명 중 활을 소지한 자가 겨우 40명에 불과하며, 활을 다룰 줄 아는 자는 겨우 몇 명에 불과하다.” “각종 병종의 군사 2,718명 중에 활을 당길 수 있는 군사는 별시위이고, 정군은 모두 약하고 가세도 빈궁해서 병기를 갖추 수 없다.”<sup>63)</sup>는 것이 이 시기 군사훈련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국방태세가 해이해져 상비군 부재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수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수군은 타군에 비해 복무기간도 두 배나 길고, 船上 생활하는 등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해 충원도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그렇지만 16세기 중반에 일본에서 ‘왜구’가 출몰하는 세 차례의 왜변인 三浦倭變(1510년), 蛇梁鎮倭變(1544년), 乙卯倭變(1555년)이 일어나면서, 조선 조정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고, 결과적으로 군선과 무기체계 혁신의 계기로 수군이 재정비되었다.<sup>64)</sup> 을묘왜변 때 판옥선이 개발되었고, 천·지·현·황·자·총통 등 임진왜란 시기에 주력 무기들이 만들어졌다(임진왜란 발발 30여 년 전에 갖추어졌다).

조선후기 수군의 수조는 각 도 수사가 주관하는 도수조(道水操)와 통제사·통어사가 주관하는 합조(合操)로 구분된다. 도수조란 각 도 수사 예하의 각 邑鎭·浦의 수졸과 군선을 징발하여 그 도의 前洋에서 수조정식에 따라 해전에 필요한 제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합조란 통제사가 충청·경상·전라도의 수군을, 통어사는 경기·황해도의 수군을 수조 정식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것을 말한다.<sup>65)</sup>

62) 『成宗實錄』 권79, 成宗 8年 4月 庚戌.

63) 『中宗實錄』 권15, 中宗 7年 5月 丁巳,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의 상소.

64) 이민웅, 앞의 책, 2012b, 69~70쪽.

65) 『燃藜室記述』別集 권8 : 官職典故 統御使條. ‘仁祖癸酉 以京畿水使 兼三道統御使管京畿·忠淸·黃海 三道舟師’라고 하였으나, 『各司謄錄』 I, 京畿道篇, 統禦營狀謄錄 同治 元年 7月 初 1日條에는, ‘臣營所官京畿·海西兩道舟師水操’

봄은 2월, 가을은 8월 안에 실시한다. 삼남과 경기의 수상 조련은 봄에는 합동 조련을 하며, 가을에는 각기 앞 바다에서 실시하는데<sup>66)</sup>

2월에 실시하는 춘조(春操)는 합조를, 8월의 추조(秋操)는 도조(道操)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합조보다는 도조를 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행병과 한발, 그리고 해상상태의 악화 등 때문이었다. 합조는 그 규모에 있어서 대소군선이 300여 척이나 동원되고, 인원도 8,500여 명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조정은 민폐를 이유로 종종 합조보다 도수조를 중용하기도 하였다. 유행병·한발, 해상조건 그리고 민폐를 이유로 합조에서 도수조로 쉽게 수정되는 것은 양 수조가 수조정식에 따라서 훈련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수조정식이란 수군의 수조교범으로서 도수조나 합조가 내용상 같은 훈련을 실시하였다. 양자의 차이란 단지 규모 뿐이었다.

조선 후기 수조의 규모와 내용을 밝혀주는 자료는 『水操笏記』·『軍國總目』·『三道舟師都分軍圖』 외에 각종 전함도 등이 있다. 『軍國總目』에는 전라좌도 수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봄과 가을에 조련하며, 수사의 주관에 따라 실시하고, 수조는 육지를 기반으로 하여 경도 앞 바다까지 배 80척 내로 이끌었고(전선 13척, 병선 20척, 사후선 41척) 이순신이 20척 내로 이끌었다.(전선 4척, 병선 5척, 사후선 11척)<sup>67)</sup>

춘추 연 2회 실시한 전라좌수영 수조는 총 군선 80척이 참가하였다. 이를 『萬機要覽』의 전라좌도 군선 보유척수와 비교해 보면 <표 11>과 같다.

로 되어 있다. 『各司謄錄』은 통어사 자신이 보고한 것이므로 그의 관찰이 경기·황해도 수군에만 미친 것임에 틀림이 없다.

66) 『萬機要覽』 軍政 1, 備邊司 戶掌事日.

67) 『英祖實錄』 권66, 英祖 18年 7月 癸酉.

〈표 11〉 전라좌도 수조 참가 군선 비율

구분	戰船	龜船	防船	兵船	伺候船	기타	계
보유척수	26	7	13	31	65	3	145
수조참가 군선 수	17	6	0	25	52	0	100
비율(%)	65	85	0	80	80	0	80

출처 : 장학근, 앞의 책, 1988. 243쪽.

도수조의 경우 포구방어를 위한 防船만을 제외하고 보유 군선의 80%가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조선은 수군의 수조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三道合操의 규모를 타나낸 자료로서 통제영 수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水操笏記』와 『三道舟師都分軍圖』이다. 두 자료를 도표화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統營合操 戰力

	水操 參加 戰力	水操笏記	三道舟師都分軍圖
軍船	統營所屬軍船(中營)	44	42
	全羅左水營所屬軍船(前營)	20	19
	慶尙左水營所屬軍船(左營)	15	15
	全羅右水營所屬軍船(右營)	31	31
	忠清水營所屬軍船(後船)	31	31
	古群山僉使所屬軍船(山北獨鎮)	6	6
	假 倭 船	48	48
	계	195(6)	192(6)
兵力	海 上 戰 鬪 員	2,520	2,427
	海 上 戰 鬪 待 機 員	248	248
	假 倭 軍	455	455
	山 城 軍	472	365
	親 兵	2,932	2,904
	계	6,627명	6,399명

출처 : 장학근, 앞의 책, 1988. 244쪽.

도수조의 군선수가 100척이고 통영합조가 195척으로 집계됨으로써, 통영합조의 규모가 도수조의 배정도로 파악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합조의 경우 何後船은 주력군선(전선·귀선·병선)에 따라다니므로 군선수에서 제외된다.<sup>68)</sup>

〈표 13〉 수조참가 군선 비율

區 分	水操物記	三道舟師都分軍圖
萬 機 要 覽	79.5%	78.3%
續 大 典	74.7%	73.5%
東 國 文 獻 備 考	83.6%	82.4%

출처 : 장학근, 앞의 책, 1988. 247쪽.

〈표 13〉은 수조참가 군선은 『만기요람』, 『속대전』, 『동국문헌비고』의 ‘수조홀기’와 ‘삼도주사도분군도’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선 수군이 군선의 중요성과 수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조선 수군은 1592년(선조 25) 5월 초 부터 9월 초까지 네 차례 출전을 수행하면서 전선을 건조하고 무기를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이런 사실은 같은 해 8월 1일 전라 좌·우도 수군이 좌수영에 모였을 때 전체 전선 척수가 7월초 한산대첩 때의 59척보다 25% 이상 늘어난 74척으로 증가한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sup>69)</sup> 또한 〈표 14〉의 1592년의 합동작전 현황에서 제1차 출전 중 옥포해전(1592.5.7) 출전 前(1592.4.30)에 전라좌수영 수군 함대가 경상우수영에 합류, 제3차 출전인 한산도대첩(1592.7.6) 출전 前(1592.7.4~7.5) 전라좌수영으로 합류, 제4차 출전 부산포해전(1592.9.1) 출전 前(1592.8.1~) 작전논의 및 합동작전 및 훈련을

68) 장학근, 앞의 책, 1988. 244~245쪽.

69) 이순신, 『임진장초』, 만력 20년(1592) 9월 1일 장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sup>70)</sup>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임진왜란 중에 전선을 건조 및 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합동작전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육군에도 진법이 있듯이 수군에도 진형이 있는데 수십 척 이상의 전선을 움직이려면 <표 14>에서처럼 출전 전에 진형 훈련을 위한 합동훈련이 필수적이었다.

<표 14> 1592년 합동작전 현황

구분	해전 명칭 (일자/장소)	참전세력 비교(척)		조선 측의 전과(척, 명)	
		조선	일본	군선	인명/기타
제1차 출전	옥포해전 (1592.5.7/ 거제도, 옥포만)	전선 28 협선 17	30여 척	대선 13 중선 6 등함 26척	사살 다수
	함포해전 (1592.5.7/ 웅천, 함포)	전선 28 협선 17	5	대선 4 소선 1척 분별	사살 다수
	적진포해전 (1592.5.8/ 고성, 적포)	전선 28 협선 17	13	대선 9 중선 2 등 13척	군량미노획 등
제2차 출전	사천해전 (첫 거부선 참가)	전선 26 협선 20 여척(추정)	13	대선 12, 기타 1 등 13척	사살 다수
	당포해전 (1592.6.1/ 당포, 선창)	전선 26 협선 20여 척(추정)	21	대선 9 중선 12 등 21척	사살 다수
	당항포해전 (1592.6.5/ 당항포, 호구)	전선 51 협선 50여 척(추정)	26	대선 9 중선 4 등 26 척	43급 외 사살 다수
	울포해전 (1592.6.7/ 울포, 근해)	전선 51 협선 50여 척(추정)	7	대선 5 중선 2 등 7척	적장 사살 사살 다수
제3차 출전	한산대첩 (1592.7.6/ 한산도, 양중)	전선 59 협선 50여 척(추정)	73	대선 35 중선 17 등 59척	340여 급, 9천여 명 이상
	안골포해전 (1592.7.10/ 안골포, 포구)	전선 59 협선 50여 척(추정)	42	20여 척 분별	사살 다수
제4차 출전	부산포해전 (1592.9.1/ 부산포일대)	전선 81 협선 92척 이상	대소 470여 척	30여 척, 100여 척 분별	사살 다수

출처 : 이순신, 『임진장초』; 이만웅(2012c), 앞의 글, 138쪽을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

70) 이순신, 『임진장초』, 만력 20년(1592) 9월 17일 장계.

1593년 8월 초에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sup>71)</sup>로 임명하였다. 이순신은 첫째 해전시기부터 이익기 함대와 합동으로 전술훈련을 시행하였다. 당시 훈련에 대한 명쾌한 기록은 없지만, 난중일기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1594년(선조 27) 연초에 이순신이 모친을 뵈고 난 후, 군사훈련을 위해 본영으로 귀영했다는 기록과, 동년 4월에는 巡撫御使 徐潛이 훈련 참관을 요청하여 한산도 근해에 나가 군사훈련을 한 예가 있다.<sup>72)</sup> 구체적인 훈련내용은 없지만 진형 연습 등 해상훈련을 시행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순신은 평소 활쏘기를 군사 훈련의 한 종목으로 부하장수나 지방관, 군관 등과 수시로 활쏘기 시합을 한 것으로 보아 많은 훈련을 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실 예로 이순신은 1592년 3월 5일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군의 선발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부산성을 공격하기 한 달여 전에 쓴 일기에 잘 나타나 있다.<sup>73)</sup>

3월 초닷새, 날이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고, 군관들은 활을 쏘았다. 저물녘에 한양에 갔던 鎭撫가 돌아왔는데, 좌의정 류성룡의 편지와 增損戰守方略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다. 이 책에는 水戰·陸戰·火攻戰 등 모든 싸움의 전술이 낱낱이 설명되어 있었는데, 참으로 만고의 훌륭한 책이다.

또한 이순신은 군관들에게도 적의 침공을 대비해서 평상시에도 활쏘기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增損戰守方略라는 책을 가져와서 책에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싸우거나 지키는 방법을 더 하거나 뺀 최신 전법서’였다. 이 책을 가지고 전술 토론을 했던 것 같다.<sup>74)</sup> 이순신 장군이 오늘날에도 가장 사랑받는 위인이 된 것은

71) 이민웅, 앞의 책, 2012b, 245쪽 : 수군절도사의 직급이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사기진작과 수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삼도수군통제사 직책을 부여했다.

72) 이순신, 『난중일기』 만력 22년(1594) 1월 1일, 4월 13일.

73) 이민웅, 앞의 책, 2012b, 60쪽.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이때는 조선이 개국한 지 200년이 되는 해이고, 16세기 초 연산군이 폐위 당한 뒤에도 土禍와 당쟁이 이어지면서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에 취해 있던 상황에서 군사력을 키우고 병법을 발전시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순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전법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sup>75)</sup>

1592년 1월 19일 : 맑다. 동헌에서 공무를 본 뒤 각 군사를 점검했다.  
2월 16일 : 맑다. 동헌에서 공무를 본 뒤 활 여섯 순을 쏘았다.  
3월 초하루 : 망궐례를 했다. 식사를 한 뒤에 별군과 정병을 점고하고, 하번군을 점검하고서 놓아 보냈다. 공무를 마친 뒤 활 열 순을 쏘았다.  
4월 초하루 : 흐렸다. 새벽에 망궐례를 했다. 공무를 본 뒤에 활 열다섯 순을 쏘았다. 별조방군을 점검했다.<sup>76)</sup>

위의 난중일기에서 기록된 것처럼 활을 쏘고, 군사를 점검하는 등 평상시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발발 3일 전에 거북선을 타고 화포를 사격하는 훈련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5관 5포의 전비태세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어시설과 훈련 상태, 전선, 병력, 무기, 성곽 등을 주로 점검하였고 대포 시범사격도 하였다.<sup>77)</sup>

74) 이민웅, 앞의 책, 2012b, 60~61쪽.

75) 이민웅, 앞의 책, 2012b, 61쪽.

76) 이민웅, 앞의 책, 2012b, 73쪽.

77) 이민웅, 앞의 책, 2012b, 77쪽.

## 4. 맺음말

이상에서 임진왜란 전후의 조선 수군의 군사체제의 변화를 조직 편성과 군사훈련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 조정은 군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무기체제와 전략전술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대한 수군은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탄생하였으며, 무기체제와 전략전술은 상호 연관되어 발전을 거듭하였다.

세종 대에 이르러 전국적인 군역제도가 개편되어 의무군역인 정병이 군사로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훈련방식으로 교육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전장의 양상과 전법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선은 임진왜란을 맞이하였고, 기존의 전술로는 일본군과 대응하는데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전술이 필요하게 되어 명나라의 기효신서를 토대로 조선 수군에 맞게 편찬한 병학지남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조선 수군의 군사적 체제가 많은 변화를 했는데, 조선 수군의 조직 편성과 군사훈련에서 찾고자 하였다.

특히, 16세기에는 文을 중시하는 문치주의 영향으로 국방태세가 약화되어, 이러한 결과가 임진왜란을 통해 모순과 허점으로 드러내어서, 조선 조정은 군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조직 편성면에서 중앙군의 훈련도감, 5군영이 조직, 지방군의 속오군을 조직하여 핵심적인 군사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16세기 수군의 진관체제는 道에 수군절제사가 임명되어 방어구역을 설정하고 진관을 방어, 지역별로 船軍數도 49,317명으로 기타 병종보다 많은 것을 고려할 때, 水戰의 중요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군사 훈련면에서 병서를 바탕으로 훈련이

시행되었다. 『진법』, 『진도지법』, 『계축진설』, 『오위진법』 같은 병서를 정비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전술과 훈련체계의 필요성을 느껴, 명나라의 『기효신서』 병법을 조선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병학지남』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조선 수군의 전술교범인 『병학통』을 편찬하였다. 또한 습사제도를 마련하여 정기적인 훈련과 훈련결과 성적을 고과에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의 수군의 水操(수군의 훈련)는 수군의 교범인 『수조정식』에 의하여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수군은 수조를 매우 중시 하였음을 고찰하였다.

임진왜란 전후 조선 수군의 군사체제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전략 전술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여 합당한 조직편성과 군사훈련을 위한 전략전술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5.9.30, 심사수정일: 2015.11.20, 게재확정일: 2015.11.23.]

주제어 : 임진왜란, 조선 수군, 조직편성, 군사훈련, 병학지남, 병학통, 기효신서, 훈련도감, 군역, 군선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ilitary System of the Korean Navy in the Joseon Period before and after the Imjin Japanese Invasion

Na Seung-hak

The organization and military training of the Navy before and after the Imjin Japanese Invasion have been compared and studied in order to take a look at the military systems of Joseon in the same period of that dynasty.

The Navy of Joseon dynasty prior to the Imjin Japanese Invasion was organized by limiting the jurisdiction in the coastal regions, an action that was done in the 7th year of King Tae-jo. This was necessary, since it became harder for the coastal people to take the burden of military service upon themselves locally. It was subsequently changed into a nationwide general military category in order not to impose a harsh burden on locals. In addition to that, the number of the navy troops were increased, and military shipbuilding and improvement had been developed during the era of King Jeong-jong.

However, the contradiction and weaknesse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Navy in Joseon Period had been displayed. Existing tactics were far inferior to match a proper response to the Japanese forces, so the Joseon military forces had to go through a process of overhauling maintenance and revision of the Joseon's military strategies and tactics.

The overall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ilitary system of the Joseon Navy went through significant changes.

In particular, the strategy was highly organized with a change in organizational formation, and there was specialization in military training aspects.

A lesson can be learned by comparing the military system of the Joseon

Navy before and after the Imjin Japanese Invasion, namely, that the Korean society makes incessant changes, and strategic tactics have to be newly established in order to meet the changes of times and in society.

That is to say, it is essential to correctly understand the demand of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order to establish and apply strategic tactics for appropriate organizational formulation and military training.

Key Words : Imjin Japanese Invasion, Joseon Navy, organizational formation, military training, Byeonghakjinam, Gihyosinseo, Byeonghaktong, Hunryeon Dogam, military service, military vessel